



전북현대 이재성(오른쪽)이 15일 전주에서 열린 AFC 챔피언스리그(태국)전에서 2-0으로 앞서가는 추가골을 터트린 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로페즈·이재성 골 폭발 전북, 챔스 8강행 확정

부리람과 2차전 2-0…총득점 4-3 앞서

전북 현대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부리람 유나이티드(태국)를 꺾고 8강에 올랐다.

전북은 1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경기에서 로페즈의 선제골, 이재성의 추가골에 힘입어 부리람에 2-0으로 승리를 거뒀다. 부리람과 각각 홈에서 1승씩을 나눠가진 전북은 1·2차전 총득점에서 4-3으로 앞서 8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지난 8일 부리람 원정 1차전에서 2-3으로 패한 전북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다. 2차전에서 온 전력을 쏟아 붓기 위해 지난 12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K리그1 홈경기에서는 임선영, 로페즈, 최철순, 송범근만을 남기고 주축선수들을 전부 교체자원으로 활용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포항에게 0-3으로 패배한 전북은 비록 올 시즌(K리그1·챔피언스리그) 홈경기 무패 행진이 깨졌지만, 고된 일정에 지친 선수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챔피언스리그 정상 탈환을 노리는 전북에게 부리람과의 일전은 K리그1 홈경기를 내줄 각오까지 할 만큼 중요했다.

승리에 대한 의욕은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나타났다. 전북은 로페즈, 김신욱을 앞세워 파상공세에 나섰다. 김신욱이 두 차례(전반 12분·전반 13분)에 걸쳐 위협적인 슈팅을 날리는 등 부리람 수비를 흔들었다.

부리람 골문을 여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전반 18분 골 에어리어 안에서 김신욱이 머리로 뚫은 패스를 로페즈가 오른발 발리슛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터뜨렸다. 후반에도 로페즈, 김신욱을 앞세워 추가득점을 노린 전북은 후반 39분 이재성이 절묘한 원발 프리킥으로 추가득점을 올리면서 사실상 승리를 굳혔다.

전주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도약 노리는 기성용…재기 꿈꾸는 이청용

기성용, 부상만 없다면 무혈입성
이청용, 실력으로 논란 극복해야
이적 시기 겹쳐…가치 입증 기회

2018러시아월드컵에 도전할 태국전사 28명이 공개됐다. 여기서 대회 최종 엔트리(23명)가 가려진다. 국가대표팀은 21일부터 6월 1일까지 경쟁을 거쳐 탈락자 5명을 추린다.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를 거쳐 대구~전주를 이동하며 진행될 1차 테스트를 앞둔 선수들 가운데 가장 경향이 풍부한 콤비가 있다. ‘쌍용’ 기성용(29·스완지시티)과 이청용(30·크리스털 팰리스)이다.

대표팀 주축으로 성장하면서 둘은 수많은 A매치를 누렸다. 기성용은 통산 99경기로, 센추리클럽(A매치 100회 이상 출전) 가입을 목전에 뒀고 이청용은 78경기를 소화했다.

또한 둘은 현 대표팀에서 ‘유이하게’ 두 차례 월드컵에서 활약했다. 2010남아공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위업에 힘을 보탤고, 4년 전 브라질월드컵을 1무2패로 마쳤다. 극과 극의 경험. 세 번째 맛을 월드컵에서 같은 아쉬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하다.

다만 전제가 있다. 최종엔트리 동반승선이다. 사실 서로가 밟아온 시간은 상당히 달랐다. 기성용이 승승장구한 반면, 이청용은 극심한 부진을 겪었다. AC 밀란(이탈리아)을 비롯한 수많은 유럽 명문클럽들의 직·간접적인 러브 콜이 기성용에게 쇄도했지만 이청용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특히 올 1월에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기성용(왼쪽)과 이청용은 각각 A매치 99경기, 78경기에서 한국축구를 대표했다. 2010남아공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위업을 함께 이룬 쌍용은 러시아에서 또 한번 큰 꿈을 그린다. 스포츠동아DB

문제는 수비다…상대국도 다 아는 한국축구 고질병

신태용(48)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2018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28명의 소집 훈련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은 이번 소집훈련 명단 발표에 앞서 김진수(26·전북 현대), 김민재(21·전북 현대) 등 주축 수비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 큰 차질이 생겼다. 28명 소집 훈련 명단에 수비수가 12명이나 포함된 것은 것은 신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고심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외신들도 한국의 수비를 약점으로 꼬집었다. 미국스포츠전문채널인 ESPN은 “한국은 거스 히딩크 감독이 있던 2002월드컵을 제외하고는 수비에서 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팬들은 선수들의 실수로 인해 수비라인이 공황상태에 빠지는 모습을 보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고 전하면서 “신태용 감독은 포백을 즐겨 사용하지만, 상대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 다만 감독은 상대에게 혼란을 줄 수는 있지만,



미국스포츠전문채널인 ESPN은 2018러시아 월드컵을 앞둔 한국 대표팀에 대해 ‘거스 히딩크 감독이 있던 2002년을 제외하면 늘 수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 지적을 했다. 꼭 풀어야할 숙제다. 신태용 감독은 28명의 소집훈련 명단에서 12명의 수비수를 선택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선수들의 잦은 실수를 막을 수는 없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는 진짜 문제다. 스웨덴, 멕시코, 독일이 이 부분을 공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같은 F조에 속해 있는 스웨덴의 스포츠매체인 스포르트블라데트와 같은 조인 독일의 축구매체 키커는 약속이나 한 듯 “부상자가 많아 수비 진영을 꾸

“부상자 속출…수비수만 12명 뽑아” 스웨덴·독일 언론, 한국 약점 지적

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비수를 12명이나 뽑았다”며 최근 부상자가 속출해 신 감독이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대부분 외신은 한국 대표팀의 주목할 선수로 손흥민(26·토트넘)을 꼽았다. ESPN은 “모든 시선이 손흥민을 향해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공격수다. F조에서 가장 주목할 선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기성용(30·스완지시티), 권창훈(24·디종), 이재성(26·전북 현대) 같은 멋진 미드필더들을 보유하고 있다. 공격 공간을 창출해 낸다면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야후스포츠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국의 파워랭킹에서 한국을 27위로 평가했다. F조에 함께 뒀한 독일은 1위, 멕시코는 11위, 스웨덴은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F조 독일·멕시코도 월드컵 예비 엔트리 발표

독일, 노이어 GK·뮐러·로이스 포함
멕시코, 치차리토 등 유럽파만 13명

‘신태용호’ 태국전사들과 2018러시아월드컵 F조에서 맞붙을 멕시코와 독일도 소집훈련 명단을 발표했다. 멕시코는 한국과 같은 28명, 독일은 27명이다.

멕시코 후안 카를로스 오소리오 감독은 15일(한국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공격수 하

비에르 에르난데스(일명 치차리토)와 골키퍼 기예르모 오초아 등이 포함된 엔트리를 공개했다. 멕시코도 현재 일부 주축선수들이 부상 변수를 안고 있다. 주장인 안드레스 파르다도를 비롯해 형제인 조나탄 도스 산토스와 지오반니 도스 산토스가 모두 몸이 성치 않다. 이에 대해 오소리오 감독은 “부상 선수들 가운데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러시아월드컵이 내일 시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서 “파르다도에 대해 소속팀인 레알 베티스 관계자들과 우리 의무팀으로부터 계속해 조언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상 변수 가운데서도 멕시코는 6회 연속 16강을 향해 최강 진용을 구축했다. 세계적인 공격수 치차리토와 오리베 페랄타, 미드필더 엑토르 모레노, 수비수 디에고 레예스 등이 모두 발탁됐다. 유럽파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멕시코 자국리그에서도 12명이 뽑혔다.

멕시코의 베테랑 수비수로 꼽히는 라파엘 마르케스는 이날 명단에 포함되면서 5회 연속 월드컵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앞

두게 됐다.

독일도 이날 대표팀 요하임 뢰브 감독과 2022년까지 재계약을 맺었음을 발표함과 동시에 27명의 예비 명단을 공개했다. 월드컵 2연패에 도전하는 독일은 예상대로 마누엘 노이어를 비롯해 토마스 뮐러, 마르코 로이스 등 쟁쟁한 스타들로 팀을 꾸렸다. 노이어는 중족골 골절로 올 시즌을 통째로 쉬어 실전 감각이 미지수임에도 뢰브 감독의 선택을 받았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불의의 부상으로 낙마했던 마르코 로이스도 기회를 잡았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